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

원 유 나

【요약문】 이 논문은 ‘만약(If)~라면, (then) ...이다.’ 형식의 조건문 중에서도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법한 사용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글이다. 일반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발화자가 전건을 확신하지 못하는 인식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가정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성립하는 특정한 세계에 대한 진술로 이해된다.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이론의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을 진리조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보면, 한 언어의 유창한 사용자가 조건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절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대안적 사용 조건인 ‘인식적 수용조건’을 정식화할 수 있다.

【주요어】 직설법적 조건문, 주장가능성, 수용가능성, 잭슨, 예징톤, 강건함, 아담스 논제

* 접수완료: 2008. 1. 8 / 심사 및 수정완료: 2008. 2. 15

1. 조건문의 분류

한 언어의 유창한 사용자에게 ‘만약 ~이면, ... 이다. (If~, then)’ 형식의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그것의 사용에 비해 철학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만약 ~이면, ... 이다. (If~, then)’ 형식의 조건문은 영어에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으로 구분되며,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이런 구분을 따라왔다. 이 두 종류의 조건문이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Adams의 아래의 유명한 예¹⁾에서 잘 드러난다.

- a) If Oswald didn't kill Kennedy, somebody else did.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였다.)
- b) If Oswald had not killed Kennedy, somebody else would have.
(만약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이지 않았었다면,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a)는 영어의 문법에서 직설법적 조건문, b)는 가정법적 조건문으로 분류가 된다. a)를 발화하는 경우, 화자는 케네디가 암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암살이 오스왈드의 단독범행이라고 믿는다. b)를 발화하는 화자는 케네디의 암살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음모에 의해 철저하게 준비된 암살이었기 때문에, 오스왈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다른 암살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a)가 화자의 인식적 한계 때문에 케네디를 단독 범행으로 죽인 암살자가 오스왈드라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

¹⁾ Adams (1970).

는 주장이라면, b)는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렇지 않은 반사실적인 경우에 있었을 법한 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주장이다. 즉, a)의 화자는 전건의 참/거짓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b)의 화자는 전건의 거짓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후자를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도 부른다.

비록 국어에서는 직설법적 조건문과 반사실적 조건문 사이의 문법적 구분이 모호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을 인식적인 것으로 반사실적 조건문을 가정적인 것-특정한 입장에 따라서는 가능세계에 관한 것, 즉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구분한다면 앞으로의 논의에서 문제가 없을 듯하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우리의 논의를 한정시킬 때, 이 직설법적 조건문은 발화자의 입장에서 전건이 참 혹은 거짓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루어지는 발화로 규정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직설법적 조건문이 연역 논증에서 사용된 역사에 비하면,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연구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듯하다. 직설법적 조건문은 그것이 논리학에서 가지는 위상 때문에 일상적인 사용과 괴리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논리학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추론, 즉 비합축적 추론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와 그것에 대한 분석은 일상적인 사용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적절하게 사용된다고 여겨지는 직관적인 사례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직설법적 조건문이 여타의 명제와 달리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특히 다소 논쟁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절한

사용은 어떻게 규제되는가하는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특징을 반사실적 조건문과 달리 화자의 인식적인 상황에 의존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대한 조건으로 정식화하겠다. 이러한 정식화가 올바른지는 우리의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을 잘 설명해주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2. 직설법적 조건문의 특징

(1) 기바드 현상 (Gibbard Phenomenon)

Gibbard의 잘 알려진 Sly Pete 예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일반 명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서, $[A \rightarrow C]$ 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면서, $[A \rightarrow \sim C]$ 도 정당하게 수용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바드 현상(Gibbard Phenomenon)"이라 한다. Gibbard의 예를 통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자.

Sly Pete와 Mr. Stone은 Mississippi의 보트 위에서 포커를 하고 있다. 이제 Pete가 쿨을 하거나 포기할 차례다. 내 부하 Zack은 Stone이 손에 든 것을 보았고, 그의 패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Pete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부하 Jack은 두 사람의 패를 모두 보았고, Pete의 패가 더 낮으므로 Stone이 이길 패라는 것을 안다. 이 때 그 방은 깨끗이 비워졌다(Jack과 Zack은 쫓겨났다). 몇 분 후에 Zack이 "Pete가 쿨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라고 써진 종이를 내 주머니에 살짝 넣었고, Jack은 "Pete가 쿨 했으면, 졌을 거예요."라고 써진 종이를 내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이 두 쪽지가 모두 나의 믿음만한 부하들로부터 온 것을 안다. 하지만 누가 어떤 것을 썼는지는 모른다. 나는 Pete가 포기했다고 결론 내렸다²⁾.

2) Gibbard (1981), p.226.

이때 Zack과 Jack의 추론은 각각이 둘 다 참인 명제를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발화자가 아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들이 발화한 조건문은 둘 다 발화할만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문장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 이 둘의 발화는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가? Zack과 Jack이 “Pete가 콜 했다면,”으로 시작하는 조건문을 발화하기 위해서 상관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 Ⓐ Pete가 질 패를 들고 있었다.
- Ⓑ Pete는 Stone이 갖고 있는 것을 알았다.
- Ⓒ Pete는 자기가 질 패라는 것을 알면, 판을 접는다(콜 하지 않고 게임의 진행을 포기한다).

Zack이 알고 있는 정보는 Ⓑ와 Ⓒ이고, Jack이 알고 있는 정보는 Ⓐ와 Ⓒ이다. Ⓐ 혹은 Ⓑ만으로는 ‘Pete가 콜 하지 않았을 것이다.’를 함축하지 않는다. 하지만 Ⓐ와 Ⓑ는 각각 Ⓒ라는 상관적인 사실과 결합하면 각각 ‘Pete가 콜 했다면, 그가 이겼을 것이다.’와 ‘Pete가 콜 했다면, 그가 졌을 것이다.’를 함축한다. 따라서 Zack과 Jack은 각자 참을 추론했고, 각각에게 참으로 여겨지는 것을 발화했다. 이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는 Zack과 Jack이 전해준 메모를 모두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둘 다 참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둘이 서로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조건문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각자의 맥락에서 서로 다르며, 이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서로 모순이 아니다. Zack이 “Pete가 콜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라고 발화할 때의 그의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Pete는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다면, 자신이 질 상황에서 절대 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Pete가 콜을 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분명 그가 이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콜 했다면,

이겼을 것이다.’ 한편 Jack은 “Pete가 콜 했으면, 졌을 거예요.”를 발화할 때 다음과 같이 사고할 것이다. ‘Pete는 자신이 질 패를 들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그가 콜을 했다면, 졌을 것이다.’ 따라서 Zack과 Jack의 상관적인 사실 ㉠, ㉡, ㉢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Zack과 Jack의 발화를 모두 정당한 것을 간주할 수 있다.

조건문에 대한 진리함수적인 설명에 따르자면, 전건이 거짓이 아니라면 ($A \rightarrow C$) 형식의 명제를 참으로 여길 때, ($A \rightarrow \sim C$)의 형식의 명제를 거짓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으로 조건문에 대한 가능세계 이론에서도 ($A \rightarrow C$)형식의 명제와 ($A \rightarrow \sim C$)형식의 명제를 동시에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A가 일관적이라면 A가 참인 가능 세계가 있을 때, 현실 세계와 가장 유사한 A가 참인 가능 세계에서 C와 $\sim C$ 가 둘 다 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진리함수적 설명과 비진리함수적 설명은 서로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두 조건문을 어떻게 우리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Gibbard의 예는 서로 양립불가능해 보이는 두 조건문을 모두 수용하는 현상을 설명할 단서를 제공한다. 바로 ($A \rightarrow C$) 형식의 명제와 ($A \rightarrow \sim C$) 형식의 명제는 각기 다른 사고과정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달리말하자면, 기바드 현상은 Jack과 Zack이 각자의 인식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 그 발화는 정당하고, 이는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준다³⁾. 또한 발화자의 인식적 맥락에 따라 직설법적 조건문은 진리조건 외의 다른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조건문에 대한 진리조건적 설명들은 발화자와 수용자가 진리조건과 별개로 정당하게 직설법적 조건문을 주장, 수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3) 기바드 현상에서 Jack과 Zack의 정보를 접한 내가 ($A \rightarrow C$)와 ($A \rightarrow \sim C$)를 모두 수용하기 위한 인식적 정당성은 Jack과 Zack의 각각의 인식적 정당성과는 다를 것이다.

(2)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진리조건적 설명

앞서 잠시 언급했다시피,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진리조건적 설명은 진리함수적 설명과 비진리함수적 설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진리함수적인 접근은 조건문을 주장하는 것이 곧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성립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여타의 명제를 주장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입장이 조건문에 대한 실질조건문 분석이다. 한편으로 비진리함수적 설명은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판단이 그것의 진리조건인 획득이 개연적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의 대표적 입장이 조건문에 대한 Stalnaker의 가능세계 이론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하는 진리조건적 설명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 우리의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을 설명해 내는데 적절한지 가능해보겠다. 이러한 작업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Stalnaker의 가능세계 전략

Stalnaker는 ‘한 조건문이 두 개의 다른 명제들의 함수인 한 명제를 표현하지만, 그 명제들의 진리함수인 명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⁴⁾’고 주장하며, 조건문에 대한 진리함수적인 설명을 거부한다. 우리는 명백히 조건문의 진리치는 모르면서, 전건과 후건의 진리치를 알 수 있을지 모른다. Stalnaker에게 ‘직설법적 조건문’은 단지 ‘조건적 믿음’의 표현이다. 나아가 가정법과 달리 직설법적 ‘조건문’은 그것을 발화한 행위자의 인식적 상태와 너무 가깝게 묶여있어서, 조건문은 그 조건문이 받아들여지는 맥락(context)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명제들을 표현하지 못 한다’고 주장한다⁵⁾. 그렇다면

⁴⁾ Stalnaker (1968), p.41.

맥락은 어떻게 정의되며, 만약 직설법적 조건문이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명제들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조건문을 원활하게 사용하는가? Stalnaker의 이론에서 맥락을 이루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 지식 혹은 가정된 공통지식, 그리고 그 대화에 참여하는 자의 공통된 가정⁶⁾’이다. 이러한 선가정된 배경지식에 의해서 가능세계들의 맥락 집합(context set)이 결정된다. 따라서 ‘명제는 가능세계들의 집합 사이에서 구별의 수단이며, 맥락 집합은 발화자가 명제를 표현할 때 구별하고자 하는 가능세계들의 집합이다⁷⁾.’ Stalnaker에 따르면 조건적 진술 ‘만약 A라면, C이다.’는 의미론적으로 전건이 참인 그 세계에서 후건이 참이라는 주장으로 분석된다. 이때 전건이 성립하는 세계에서 전건이 참이면 있었을 그런 가능세계로의 함수가 선택 함수(selection function)이다. 이 선택함수는 유사성에 기초하며, 선택된 가능 세계들의 정합적인 순서를 결정한다. 이때 유사성판단의 적절한 기준들은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맥락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선택함수를 통해서 제한한다⁸⁾. 따라서 기바드 현상에 대한 Stalnaker의 설명은 발화자의 맥락이 다른 경우에 다른 선택 함수에 호소하므로 Zack의 발화가 표현하는 것은 $A \square \rightarrow \sigma B$ 인 반면에, Jack의 발화가 표현한 것은 $A \square \rightarrow \tau B$ 이다. 즉,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 두 명제는 모순이 아니다. 두 사람이 자신의 인식적 맥락에서 정당하게 $[A \rightarrow B]$ 형식의 명제와 $[A \rightarrow \sim B]$ 형식의 명제를 발화했으며, 수용자 역시 그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정당하게 두 명제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을 Stalnaker는 잘 설명할 수 있다.

5) Stalnaker (1984), p.111, Ch.6와 Ch.7을 참고.

6) Stalnaker (1975), p.141.

7) *Ibid.*, p.142.

8) *Ibid.*, p.144.

하지만 조건문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기바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문의 명제 혹은 진리조건을 맥락 의존적, 주체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Stalnaker의 입장은 청자와 화자의 인식적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는 우리의 직관적인 조건문 사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듯 보인다. 하지만 화자의 인식적 맥락에 의존하는 '명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Stalnaker의 주장은 조건문의 수용이 수용되는 '진리조건'으로써 인식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오늘날 의미에 대한 맥락주의적 접근이 완전히 배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문장이 시시때때로 다른 명제를 표현한다는 그의 의미론의 귀결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앞서 기바드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은 가정법적 조건문과 달리 사용자의 인식적 과정에 의존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때 어떤 인식적 정당성이 요구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문이 매 사용 때마다 표현하는 명제가 다른 것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암살할 것이다.'와 같은 문장의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 대한 확신 정도는 달라지거나, 수용여부가 갈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이지, 조건문이 표현하는 명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를 Stalnaker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은 다소 부당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어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특징을 고찰할 수 있는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자.

2) 실질조건문 분석을 지지하는 진리함수적 설명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실질 조건문 분석은 조건문에 대한 진

리 조건적 설명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추론이 직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사나 정원사 둘 중 한 명이 범인이다.; 따라서 만약 집사가 범인이 아니라면, 정원사가 범인이다.’⁹⁾라는 추론을 가정해보자. 집사나 정원사 둘 중 한 명이 범인이다($B \vee G$).’로부터, ‘집사가 범인이 아니다($\sim B$).’ 그러므로 ‘정원사가 범인이다(G).’를 추론하는 것은 실질조건문($\sim B \supset G$)과 논리적으로 동치이므로 타당한 추론이다.

이렇게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사례들이 있다면, 이 사례들은 설법적 조건문의 실질조건문 분석은 Jackson이 제시한 논란없는 원리(uncontented principle)와 이행 원리(passage principle)를 만족시켜야 한다. 논란없는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주장이며, 이행 원리는 실질조건문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함축한다는 주장이다. 이 두 원리를 만족시키는 사례들이 있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곧 실질조건문이다. 다음의 조건문은 논란없는 원리를 지지하는 사례이다. ‘만약 비가 온다면, 경기가 취소될 것이다($A \rightarrow C$).’ 이 조건문은 비가 오고, 경기가 취소되지 않을 때($A \& \sim C$), 거짓이다. 즉, [$A \rightarrow C$]가 참이라면, 반드시 [$A \& \sim C$]는 거짓이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을 함축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집사와 정원사의 예는 이행 원리를 지지하는 사례이다. 하지만이 이러한 사례들이 논란없는 원리와 이행성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함축의 역설들의 원리(principle of paradoxes of material implication)에 의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 조건문의 사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질 함축의 역설들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⁹⁾ Stalnaker가 직접 논증(direct argument)라고 부르는 이러한 추론은 타당한 추론이며, 이는 실질조건문 분석과 일치한다.

- ㉠ $\sim A$ 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추론할 수 없다.
- ㉡ C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추론할 수 없다.

$\sim A$ 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단지 비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로부터, ‘비가 온다면, 경기가 취소되었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지어 ‘내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로부터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면, 오늘 100m 달리기에 출전할 것이다.’라는 추론도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다. 한편 ‘내 고양이가 내일 살아 있을 것이다.’로부터, ‘오늘 내 고양이가 죽는다면, 내일 살아 있을 것이다.’를 추론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C로부터 $[A \rightarrow C]$ 를 추론 역시 불합리하다. 따라서 Jackson이 제시한 논란없는 원리와 이행의 원리는 동시에 참일 수 없다.

이렇게 Jackson과 Grice가 지지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실질조건문 분석은 독립적인 사례들로부터 지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원리들이 동시에 만족 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조건문이 아니거나, 적어도 실질 조건문 분석만으로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 따라서 직설법적 조건문은 실질 조건문과 동일시 될 수 없으며, 조건문의 기호 화살표(\rightarrow)는 실질조건문의 진리함수적인 연결사인 말굽(\supset)과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Grice는 실질조건문 분석에 화용론적 요소인 대화적 함의¹⁰⁾(Conversational Implicature)를 추가하는 것을 통해서

¹⁰⁾ Grice (1976). Grice의 대화적 함의는 의사소통되는 비진리조건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한 언어 표현과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맥락의 어떤 발화에서 사용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Jackson이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표지된 것(what is signalled)’을 구분했다면, Grice는 ‘말해진 것(what is said)’과 ‘함의 된 것(what is implicated)’을 구분한다. Grice의 함의의 특징은 그의 대화적 함의가 우리가 상호협조

설명한다. Jackson의 해결은 직관적인 아담스 논제¹¹⁾(Adams' Thesis)와 같은 귀결에 이르는 규약적 함의¹²⁾(Conventional Implicature)로써의 '강건함(robustness)' 개념을 도입한다. Jackson은 그의 보완된 동치이론에서 진리규칙과 주장가능성(assertibility) 규칙을 제시하면서, $(A \rightarrow C)$ 형식이 조건문은 진리조건과 주장가능성 조건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은 실질조건문과 동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장가능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므로 그 사용에서 제한되어 있다. 이때 주장가능성 조건이 '강건함'이라는 규약적 함의이다. 주장가능성 조건인 강건함이 규약적 함의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고(and)'와 '그러나(but)'의 차이처럼 대화에 있어서 진리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만 대화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성취하고자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Jackson의 '강건함'에 대한 정식화는 아래와 같다.

A가 I와 관련해 강건하다 iff $P(A)$ 가 $P(A/I)$ 와 비슷하고, $P(A)$ 와 $P(A/I)$ 가 모두 높다¹³⁾.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 $[A \rightarrow C]$ 는 $P(A \supset C)$ 가 높고, $P(A \supset$

적이려는 경향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 11) Adams(1965). 아담스 논제는 $(A \rightarrow B)$ 의 직설법적 조건문이 주장가능성은 A가 주어졌을 때, B가 갖는 조건적 확률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조건문 '만약 A이면 B이다.'가 주장가능하다는 것은 A가 주어졌을 때 B에 대한 조건적인 주관적 확률, $P(B/A)$ 가 높다는 것이다.
- 12) Jackson은 이러한 규약적 함의는 그러나(but)와 그래서(and)와 마찬가지로 진리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화를 매끄럽게 하고 내용('P그리고Q'에서의 'P&Q')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Jackson은 '만약 (If)~한다면, (then) ...이다.'와 '만약(Even f)~한다하더라도, (then) ...이다.' 규약적 함의에서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pp.32-35)

13) Jackson (1987), p.22.

C/A) 또한 높을 때, 적절하게 주장된다. 즉, 직설법적 조건문은 주장되는 실질 조건문이 그 전건에 관하여 강건함을 표지해주는 장치이다.

실질조건문 분석의 지지자들의 접근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그것의 의미를 결정하는 진리조건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조건문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장가능성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dgington은 이러한 진리조건적 설명을 거부하고 이들의 처방을 반대한다. Edgington이 제시한 예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추가적인 제한이 직설법적 조건문을 실질 조건문으로 분석하는 것을 타당하게 만들어주는지 살펴보자.

2) 주장가능성 조건에 대한 Edgington의 반박

Grice는 실질 조건문 분석을 옹호하면서, 조건문의 발화가 청자를 오도하는 경우를 참이지만 주장하기 적절하지 않은 조건문으로 분류한다. Jackson은 이에 대해서 강건함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조건문에 대해서 주장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Jackson과 Grice의 실질조건문 분석에 대한 반례로 제시된 Edgington의 설문 조사 사례¹⁴⁾는 다음과 같다.

질문	답변	실질조건문분석	진리값
①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니오	L	F
②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지구 온난화는 가속화 될 것이다.	네	$\sim L \vee W$	T
③ 만약 노동당이 당선된다면, 다음 정부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아니오	$L \rightarrow N$	T

¹⁴⁾ Edgington (1986), pp.182-185.

질문	답변	실질조건문분석	진리값
④보수당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네	C	T
⑤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거나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네	$W \vee C$	T
⑥만약 선거기간 중 보수당의 엄청난 비리가 밝혀진다면, 보수당은 당선될 것이다.	아니오	$S \rightarrow C$	T

(※ 굵은 선 안이 설문조사 내용, 오른쪽 표는 실질 조건문 분석)

Grice는 실질조건문 분석에 기초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수용하는 것이 다르다는 주장으로부터, 적극적인 주장인 발화에만 대화적 함의를 부가한다. 하지만 Edgington의 예는 조건문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 역시도 진리함수적인 진리조건을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과 같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건문을 직접 사용하는 발화자에게만 대화적 함의를 적용하는 Grice의 접근에 대한 반박이며,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대한 규약적 함의를 ‘주장가능성’으로 정식화한 Jackson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Edgington은 이러한 결과가 비진리조건적인 Grice의 대화적 함의와 Jackson의 주장가능성 조건이 부가되더라도 실질조건문 분석이 실패하는 경우로 간주 한다¹⁵⁾. 따라서 그는 조건적인 믿음과 실질 함축에 대한 믿음이 일치한다고 여길 이론적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Jackson의 경우 주장가능성 조건이 조건문의 청자에게 부가되는 수용가능성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Edgington의 비판은 쉽게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질 함축이 직설법적 조건문보다 더 약한 것을 주장한다는 통찰은 Jackson과 Grice의 접근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다만 직설법적 조건문이 실질조건문으로 분석하고 강건함 조건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건문이 복합문장의 구성문장으로 등장하는 경우¹⁶⁾와 조건문을 이용한 추론 과정의 반직관적인

¹⁵⁾ *Ibid.*, p.186.

¹⁶⁾ Edgington (1986), p.187.

사례¹⁷⁾를 설명하는 충분한 제약이 되지 못할 것이다. Jackson의 규약적 함의가 실질조건문 분석에 얹힌 비의미론적 요소라면 이러한 반직관적인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건문에 대한 믿음과 실질 함축에 대한 믿음이 일치한다는 입장에 개입하게 되면, 실질 조건문의 타당한 사용들을 우리의 조건문 사용에 대한 직관과 비교해 설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이 요구하는 인식적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조건문과 실질 함축의 동치를 설명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인 적절한 직설법적 조건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면 이를 어떻게 정식화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실질조건문 분석에 구태여 개입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덧붙여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대한 제약 조건은 Edgington의 예가 드러내듯이 조건문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조건이 조건문의 주장 조건이면서 동시에 수용 조건으로도 기능해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어떤 요소 혹은 내용이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가? 이제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 혹은 주장할 때, 진리조건적 분석 이상으로 화살표(\rightarrow)가 갖는 추가적 정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rightarrow 의 추가적인 정보

Edgington은 $(A \rightarrow B) \vee (\sim A \rightarrow B)$ 가 실질조건문으로 해석된다면, $(A \rightarrow B)$ 를 거부하자마자, $(\sim A \rightarrow B)$ 에 개입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 17) Edgington이 제시하는 타당한 추론이면서 반직관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를 한다면 신이 응답할 그런 상황이 아닐 것이다.’ : $[\sim P \rightarrow \sim(Q \rightarrow R)]$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 $[\sim Q]$

\therefore ‘그러므로 신은 존재한다.’ : $[P]$

경마에 문외한인 나는 경마잡지에서 썩썩이가 지난 주 경마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때 경마를 좋아하는 영희가 와서 지난 주 우승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썩썩이 혹은 썩썩이가 우승했어.”라고 대답했다. 내가 경마잡지를 이미 보았다는 사실은 아는 봉구는 이 광경을 보고는 영희에게 사실은 내가 어떤 말이 우승한지를 안다고 귀뜸 해준다. 이제 영희는 내가 자신을 속이려고 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발화는 여전히 참이다. 하지만 영희가 마권을 들고 있고 어떤 말이 우승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라면, 영희는 내가 자신에게 잘 못된 정보를 줬다고 생각할 것이다¹⁸⁾. 영희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는 마치 내가 어떤 말이 우승했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 한 것이다. 내가 참을 발화함에도 불구하고, “썩썩이 혹은 썩썩이가 우승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발화의 상황이 어떤 말이 우승한지 모른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또한편으로 썩썩이가 우승 후보 중 하나라는 정보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될 수 있다. 따라서 청자의 입장에서 [AVC]를 주장하는 것은 A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발화자가 무엇을 확신하는지 모른다는 발화자의 인식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위의 이야기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건문에 대한 상황으로 만들어 보자.

경마에 문외한인 나는 경마잡지에서 썩썩이가 지난 주 경마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때 경마를 좋아하는 영희가 와서 지난 주 우승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어떤 말이

18) Grice는 위와 같은 경우를 유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간결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적 함의를 해치는 것으로 본다. Jackson은 위의 예에서 나의 주장이 강건함(robustness)을 고려하지 않은, 약한 주장이기 때문에, 더 강한 주장이 적절한 상황에서 약한 주장은 주장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할 것이다.

우승했나는 영희의 대답에, “만약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쌍쌍이가 했어.”라고 대답했다. 쌍쌍이가 유력한 우승 후보임에 반해, 쌍쌍이가 승률이 매우 낮은 말이라는 것을 아는 영희는 내 대답에 의아해한다. 영희는 만약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쌍쌍이에 버금가는 날쌔돌이가 우승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 나를 신뢰하는 영희는 쌍쌍이가 우승하지 못하면, 날쌔돌이가 우승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쌍쌍이가 우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쌍쌍이가 우승하지 못하면 날쌔돌이를 비롯한 유망한 말들이 모두 우승하지 못할 상황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혹은 자신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쌍쌍이가 갑자기 좋은 말로 거듭나는 상황을 상상한다. 혹은 지난 주 경마에서 쌍쌍이와 쌍쌍이 밖에 출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나의 발화는 실질 조건문 분석에 따르면 참이다. 하지만 영희는 내가 ‘쌍쌍이가 우승했다.’는 정보, 혹은 ‘쌍쌍이 혹은 쌍쌍이가 우승했다.’는 정보 이상의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 말을 신뢰하는 영희는 내가 쌍쌍이가 자신의 생각보다 그 경기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려주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A대신 $[A \vee C]$ 를 발화하는 것이 발화자의 인식적 상태가 어느 쪽 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가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C가 A와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고려되어야 할 선택지라는 암시를 준다. 한편 $[A \vee C]$ 대신 $[\sim A \rightarrow C]$ 를 발화하는 것은 A가 C의 발생에 유관하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협조적인 청자라면, $[\sim A \rightarrow C]$ 를 듣고 $\sim A$ 와 C가 가질 유관성을 자신의 정보를 토대로 하여 구성할 것이다. 여기에는 발화자가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하여 $[\sim A \rightarrow C]$ 를 발화하였는지에 대한 추측도 포함이 된다. 경마와 말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나의 입장에서는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날쌔돌이가 했어.”,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으면, 바람돌이가 했어.”,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날쌔돌이가 했어.”... 등의 조건문들을 모두 실질 조건문 분석에 따라 같은 정도로-모두 참인

것으로- 주장(수용) 될(할) 수 있다. 하지만 경마 팬인 영희의 입장에서 같은 정도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지난 주 경마의 출전 말들에 대한 승률이 다음과 같은 순이라고 가정해보자.

쌍쌍이 > 날쌔돌이 > 바람돌이 > 날랜돌이 > ... > 쌍쌍이

경마 팬인 영희의 입장에서, “만약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가 했어.”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정도는 위의 출전 말들의 승률 순과 일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승률이 가장 낮은 쌍쌍이에 대해서, “만약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쌍쌍이가 했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만약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았다면, 날쌔돌이가 했어.”보다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영희는 나의 말을 듣고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아서 쌍쌍이가 우승하는, 즉 쌍쌍이가 우승하지 못하는 것이 쌍쌍이의 우승에 유관한 그런 상황을 상상할 것인데, 영희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쌍쌍이가 우승하지 않으면서 날쌔돌이가 우승하는 그런 상황보다 덜 있음직하기 때문이다. 이때 $[\sim A \rightarrow C]$ 의 실질조건문 분석인 $[A \vee C]$ 는 그런 유관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쌍쌍이가 우승할 것이다.(A)’라는 믿음이 영희가 거의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해도, 이 상황에서 영희는 $[\sim A \rightarrow C]$ 를 덜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상황에서 영희가 나에게 대해서 높은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면, 아마도 자신의 믿음 A보다 나의 발화 $[\sim A \rightarrow C]$ 에 더 높은 정도의 믿음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희가 조건문을 수용하는 정도는 영희가 나의 발화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영희가 그 조건문에 관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이상의 것을 영희가 믿도록 혹은 추측하도록 하는 $[\sim A \rightarrow C]$ 의 발화는 청자를 오도하게 하는 부적절

한 발화일 것이다. 이처럼 발화자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정보 이상을 청자가 믿도록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 $[\sim A \rightarrow C]$ 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발화이다. 이때 청자가 발화자를 자신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믿을 때, 청자의 $[\sim A \rightarrow C]$ 를 수용은 $[A \supset C]$ (혹은 $[\sim A \vee C]$)에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함의되어 있음을 기대한다.

- (1) $\sim A$ 가 성립할 때, C가 있을 법하다.
- (2) $\sim A$ 가 C', C'', C'''...보다는 C와 더 유관하다. (후건에 고려될 수 있는 상관적인 선택지가 여럿일 때)

따라서 (1), (2)가 만족 될수록 더 수용할 만하다고 여긴다. 발화자 입장에서도,

- (1') $\sim A$ 가 성립할 때, C가 있을 법할 때,
- (2') $\sim A$ 가 C', C'', C'''...보다는 C와 더 유관하다고 생각될 때 (후건에 올 상관적인 선택지가 여럿일 때)

일수록, 더 주장할만하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의 화살표(\rightarrow)는 실질 조건문의 말굽(\supset)과는 달리 전건과 후건의 의미의 이해에 기반하고, 전건과 후건 사이의 특정한 유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전건과 후건의 유관성에 관한 정보가 직설법적 조건문의 주장과 수용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면,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이론은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에 대한 의미 이해에 기반 한, 양자 사이의 유관성에 대한 원리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드러난 직설법적 조건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i) 기바드 현상을 받아들인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가능성과 주장가능성은 진리조건 혹은 그것의 명제와는 독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 역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 ii)

직설법적 조건문의 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는 조건은 청자의 수용과 화자의 주장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 iii) 직설법적 조건문의 화자와 청자는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어떠한 관련을 가지기를 기대하며, 유관성이 클수록 수용과 주장에 더 적절하다고 간주된다. 특히 i)과 iii)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이 청자와 화자가 가진 인식적 맥락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직설법적 조건문 분석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으로, 청자의 화자의 인식적 맥락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수용가능성과 주장가능성을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3.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인식적 접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용 혹은 주장가능성의 조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수용 혹은 주장가능성 조건은 청자는 수용의 맥락과 청자의 인식적 정당성에 의존해 조건문의 수용 혹은 거부가 결정될 것을 요구할 것이며, 발화자에게 있어서도 발화의 맥락과 인식적 정당성을 그 기준으로 요구할 것이다. 또한 위의 논의에서 암시되었다시피 우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수용할 때, 어떤 종류의 유관성을 기대한다.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이러한 유관성은 전혀 없거나, 다양한 정도로 있다. 전건과 후건 사이의 유관성이 정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수용과 주장에서도 수용정도, 주장정도를 가질 것이다. 수용정도/ 주장정도가 0인 상태는, 주장 불가능한 인식적 상태로 간주된다. 편의상 발화자의 주장가능성/ 주장정도를 청자의 수용가능성/수용정도와 같다고 보고,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주체의 수용가능성/수용정도로 사용할 것이다.

(1) $[A \rightarrow C]$ 가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을 사용할 때, 즉, $[A \rightarrow C]$ 를 수용할 때, 먼저 A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성립하는 상황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식을 동원하여, 그 상황에 C가 있을 법한가를 따져본다. 아마도 C가 있을 법하다면, 그 조건문을 받아들일 것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혹은 $\sim C$ 가 더 있을 법하다면, 거부할 것이다. 발화자의 입장에서는 C', C'', C'''... 중에서 더 있을 법한, 혹은 대화의 맥락에서 A와 더 유관한 것을 취하는 것이 더 주장할만한 조건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관성은 앞서 살펴본 대로 실질 함축이 아니다. 따라서 조건문 $[A \rightarrow C]$ 는 A와 C 사이의 맥락 의존적인 특정한 관계에 대한 표현이다.

우리는 $[A \rightarrow C]$ 인지 $[A \rightarrow \sim C]$ 에 관해서 때때로 논쟁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통찰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Ramsey의 “두 사람이 ‘만약 p이면 q인가?’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고, 둘 다 p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그들은 p를 가정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추가하고, 그를 기초로 q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¹⁹⁾”라는 언급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조건문으로써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A를 잘 이해하고 있는 두 사람이 $[A \rightarrow C]$ 인지 $[A \rightarrow \sim C]$ 인지를 논쟁하고 있는 두 사람은, 각자의 인식적 조건 즉, A가 성립할 때 관련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C인지 $\sim C$ 인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amsey의 어휘로 바꿔 말하자면, p를 가정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추가했을 때, 믿음 체계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A \rightarrow C]$ 를 이해하는 것이 곧, A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일관적으로 C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조건문은 A와 C를 받아들이는 특정한 믿음 체계인가? 램지테스트

¹⁹⁾ Ramsey (1931), p.247.

라고 불리는 이러한 조건문에 대한 해석은 A를 믿으면서 C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한 믿음 체계에서 정합적이기만 하면 만족될 것이다. 하지만 조건문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유관성이 그렇게 약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A \rightarrow C]$ 를 수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꼭 그러한 심적인 상태에 있지 않고도 그 조건문을 판단하고 수용/주장할 수 있는 것 같다.

(2)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

명제 P를 이해한다는 것은 명제 P가 언제 참인지를 아는 것이다. 따라서 P를 이해한다면, P가 언제 참이 되는지를 안다고 할 수 있다. P가 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태들을 W라고 하자. W는 P의 진리조건이므로, W가 성립하면 P는 참이다. 그러므로 명제 P에 대한 성립조건 W_P 와 W_Q 가 같다면, P와 Q의 외연은 같다. 조건문 $[A \rightarrow B]$ 에서 명제 A가 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사태들을 W_A 라고 하자. 우리는 명제 A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때, W_A 를 떠올린다. 또한 W_A 가 성립하는 데에 관련되어 청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들을 R_A 라고 하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W_A 를 떠올리는 것이 A를 믿는 심적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R_A 는 현재 맥락에서 청자에게 A의 성립과 관련되어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그 내용은 그 주체의 맥락과 인식적 상태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비교적 A에 관해서 W_A 가 같은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 가능성을 보장하는 매우 유사한 것, 혹은 거의 같은 것인 반면에, R_A 는 모든 대화와 발화, 수용의 맥락에 따라서, 주체의 정보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주체의 인식적 맥락에 의존적인 정보이다. 우리는 W_A 와 R_A 에 따라서 후건을 더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마도 W_A 와 R_A 가 C를 더 믿게 만들수록 A는 C와 유관하며, 수용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A \rightarrow$

C]의 전건과 후건이 갖는 관계는 W_A 와 R_A 가 C를 믿는 것을 어느 정도로 보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C가 W_A 와 R_A 에 의해서 얼마나 보증되느냐에 따라서, 조건문의 수용정도가 결정된다.

인식적 주장조건(수용조건)

[A→C]의 주장이 “ W_A 와 R_A 가 믿음 C를 어느 정도로 보증한다.”는 A와 C의 유관성을 표현할 때, [A→C]가 적절하게 주장된다.

[A→C]의 주장이 “청자의 W_A 와 R_A 가 청자로 하여금 믿음 C를 어느 정도로 보증한다.”는 A와 C의 유관성을 청자가 인정할 때, [A→C]가 수용된다.

달리 말하자면, [A→C]의 화살표(→)는 A의 성립조건 W_A 가 발화자의 A와 관련된 현재 정보 R_A 와 함께 믿음 C에 양의 정도의 보증을 부여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A→C]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W_A 와 R_A 가 있을 때 C를 더 믿기 쉽다. (W_A 와 R_A 는 믿음 C의 성립 조건인 W_C 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이때 보증의 정도는 다양한 정도로 나타날 수 있으며, 앞선 예에서 처럼 C', C'', C' "...가 있어서, 믿음 C를 보증하는 것보다, W_A 와 R_A 가 C'를 더 보증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즉, 수용 가능한 조건문들 사이에서도 전건과 후건의 유관성이 더 커서, 보증 정도가 더 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다. 따라서 보증 정도가 클수록 전건과 후건이 더 긴밀하게 연결된 조건문으로 여기며, 이러한 유관성이 클수록 수용정도가 높다.

(3) '인식적 수용조건'의 적용

앞서 정식화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인식적 수용조건을 점점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인식적 수용조건이 잘 작동한다면, 우리의 조건문의 사용을 잘 설명해 줄 것이며, 다양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용례들을 우리의 사용과 직관에 맞게 구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인식적 수용조건’에서 사용된 보증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한 명제의 성립조건, 혹은 진리조건은 그 명제를 믿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인식 주체에게는 그 사태가 그 명제를 믿는 것을 완전히 정당하게 한다. 가령, 우리와 가까운 은하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사태 S라고 하자. 폭발이 특정한 시점에 일어났음은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우리의 믿음 P을 보증한다. 그것이 즉각적으로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믿음을 발생시키지 않겠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우리와 가까운 은하에서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믿음을 형성시킬 인과적 과정을 분명히 가질 것이기 때문에, S는 P에 대한 믿음에 최소한의 보증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신성의 폭발과 같은 경우 믿음 P에 대해서 S는 약한 의미의 보증을 한다. 반대로 지금 내 눈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R이라고 하자. 내가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곧장 ‘빨간 사과가 있다.’는 믿음 Q를 형성할 것이다. 이 믿음은 R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보증되며, R은 내 시지각과 판단 능력을 통해서 인과적으로 Q를 믿는 것을 정당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경우 R은 Q를 충분히 보증한다. 따라서 약한 보증이 특정한 믿음을 가질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가장 강한 보증은 특정한 믿음을 갖는 충분조건이다.

우리가 조건문에서 다루고 있는 전건의 성립조건 W_A 의 보증능

력은 경우에 따라 즉각적으로 믿음 C를 형성하기도 하고, 약하게 믿음 C를 형성하는 최소 조건으로 보증하기도 한다. 덧붙여 보증이 없을 때 보다 있을 때 C를 믿을만하게 만들어 준다면, 이를 약한 보증과 강한 보증의 중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하자.

이제 W_A 와 R_A 의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수용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자. 다음은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여겨지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례들이다. 만약 이 직설법적 조건문이 적절하게 발화된다면, 청자의 인식적 맥락에 의존해서 수용 혹은 거부가 곧바로 결정이 될 것이다.

- a. '만약 그가 총각이라면, 결혼하지 않았다.'
- b. '만약 그 도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면, 그 도형은 세 변을 가진다.'
- c. '집사가 범인이 아니라면, 정원사가 범인이다.'
- d. '만약 태양이 앞으로 10분 안에 사라진다면, 지구는 약 18분 19초 뒤에 어두워 질 것이다.'
- e. '만약 225년 전 템즈강이 범람했다면, 그 당시 템즈강 상류에 많은 비가 내렸다.'
- f. '만약 내 동료가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 g. '만약 그가 파주에 없다면, 경기도에는 있다.'
- h. '만약 그의 병세가 악화 된다면, 많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 i. '만약 내가 실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봉구를 사랑할 것이다.'
- j. '만약 그 애가 이 문제를 푼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a)와 (b)는 W_A 만으로 C를 믿는 것을 충분히 보증한다. 한편 (c)의 경우 A에 관련된 정보, '집사 혹은 정원사가 범인이다.'가 R_A 로 주어진다면, W_A 는 R_A 와 함께 C를 충분히 보증한다. 즉, R_A 로 $[A \vee C]$ 혹은 $[\sim(A \& \sim C)]$ 가 주어진다면, C는 (a), (b)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보증된다. (d)의 경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

억 5000만km이다.’가 R_A 로 주어진다. W_A 는 R_A 와 함께 C 를 충분히 보증한다. 마찬가지로 (e)~(f)에서도 A 의 성립에 이상적인 정보 R_A 가 제시되면 W_A 와 함께 C 가 충분히 보증된다. (e)의 경우 내가 만약 범람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우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225년 전의 해수면의 높이가 현재보다 더 높지는 않았다는 것을 관련 사실로서 높은 정도로 믿고 있다면, 225년 전 템즈강의 범람이 많은 비 때문이라는 것을 비교적 확신할 것이다. 하지만 청자에게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라면, 이 조건문의 수용을 머뭇거리게 될 것이다. (f)의 경우, W_A 가 내 동료가 나를 속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R_A 가 ‘그 동료가 치밀하고, 조심성 있으면서, 영리한 사람이고, 나는 그를 신뢰하고 있으므로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W_A 와 R_A 는 C 를 믿는 것을 높은 정도로 보증할 것이다. 이때 A 를 믿음으로 가지는 것과 A 의 성립조건인 W_A 를 떠올리는 것은 명백히 다르다. 인식자가 A 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조건 W_A 이 주어져도 그로부터 A 를 직접적으로 믿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W_A 는 A 를 믿기 위한 최소 조건이며, W_A 가 성립한다고 해서 A 를 믿는 것이 곧바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²⁰. (g)의 경우 C 가 $\sim A$ 에 의해서 함축되며, (h)는 A 의 상관적 믿음이 C 를 함축한다. (g)에서 A 의 그가 있을 장소에 대한 정보 R_A 는 후건을 보증한다. 한편 (h)에서 A 의 상관적 믿음은 그의 병세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예컨대 ‘그가 고혈압이긴 하지만, 최고 혈압이 170mmHg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20) 가령 앞서의 ‘초신성이 폭발했다(P).’는 믿음을 생각해보자.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사실 S 는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믿음을 가질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10만 광년 거리의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초신성의 폭발사실이 알려지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초신성이 폭발했다’는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때 W_P 는 S 이지만, W_P 를 떠올리는 것이 곧바로 P 를 믿게 만들지는 않는다.

면 이 또한 후건을 보증한다. (g)와 (h)는 모두 보증관계를 만족시키면서, 후건에 대한 강한 신뢰와 더불어 비교적 A의 성립이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A를 유력한 가능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 (g)와 (h)의 경우는 R_A 와 $R_{\sim A}$ 가 모두 후건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Even if)만약~한다 하더라도, (then)...’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i)의 경우는 전형적인 ‘(Even if)만약 ~한다하더라도, (then)...’의 조건문으로 (i)를 발화하는 사람은 A와 관련된 어떤 정보와도 독립적으로 C를 강하게 믿고 있다. 이 경우는 W_A 와 R_A 의 보증정도 보다는 어떤 A가 주어지든지 C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j)는 우리가 전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이다. 이러한 조건문의 사용은 W_A 가 거의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발화자의 확신을 표현한다. 발화자의 입장에서 A가 거의 일어날 법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W_A 가 있다면, R_A 와 더불어 더욱더 일어날 법하지 않은 C까지도 보증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은 C가 거의 일어날 법하지 않은 만큼, A 역시 일어날 법하지 않다는 $\sim A$ 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소 복잡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다.

발화, 수용에 적합한 조건문	수용, 발화에 요구되는 것
① a. ‘그가 총각이면, 결혼하지 않았다.’ b. ‘만약 그 도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면, 그 도형은 세 변을 가진다.’	W_A 만으로도 C를 충분히 보증
② c. ‘집사가 범인이 아니라면, 정원사가 범인	이상적인 R_A 가 주어졌을 때, $W_A \& R_A$ 가 C를 충분히 보증.

<p>이다.’ d. ‘만약 태양이 앞으로 10분 안에 사라진다면, 지구는 약 18분 19초 뒤에 어두워질 것이다.’ e. ‘만약 225년 전 템즈강이 범람했다면, 그 당시 템즈강 상류에 많은 비가 내렸다.’ f. ‘만약 내 동료가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g. ‘만약 그가 파주에 없다면, 경기도에는 있다.’ h. ‘만약 그의 병세가 악화 된다면하더라도, 많이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p>	<p>그렇지 않은 경우, R_A에 따라 다양한 정도로 $W_A \& R_A$가 C를 보증.</p>
<p>③ i. ‘만약 내가 실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봉구를 사랑할 것이다.’</p>	<p>C의 믿음 정도는 $W_A \& R_A$와 $W_{-A} \& R_{-A}$에 의해서 변하지 않음.</p>
<p>④ j. ‘만약 그 애가 이 문제를 푼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p>	<p>W_A와 R_A가 매우 일어날 법하지 않아서 어떤 C라도 보증. A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현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사적 사용.</p>

유형 ①은 직설법적 조건문이 수용되었을 때, 전건은 후건을 함축하는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A가 주어지면, C에 대한 믿음은 충분히 보증된다. 유형 ②는 일반적인 조건문으로 발화자와 청자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인식적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허용한다. 유형 ②는 적절한 A가 주어졌을 때, 즉 $[A \rightarrow C]$ 일 때 C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더 높아 진다. A의 성립조건인 W_A 와 상관적인 사실인 R_A 가 C를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유형 ③은 ‘만약(Even if) ... 한다하더라도, (then) ... 일 것이다.’ 형식의 조건문으로, 전건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후건이 보증된다. 즉, 이러한 유형은 어떤 경우든 후건을 강하게 믿는다는 것을 표지한다. 유형 ④는 대등하게 있음직하지 않은 일들을 대등하게 배열하여, 전건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자 혹은 발화자에 인식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R_A 가 요구되는지, 그리고 $\sim A$ 혹은 A 에 민감한지에 따라, 위의 직설법적 조건문의 유형들의 유관성 정도의 순위를 매길 수 있겠다.

유형 ① > 유형 ② > 유형 ③ > 유형 ④

직설법적 조건문이 전건과 후건의 유관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식 주체의 믿음 C 에 대한 보증 정도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우리의 일상적인 조건문 사용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일상적인 직설법 조건문의 사용에서, W_A 와 R_A 가 C 를 믿는 것을 양의 값으로 보증하기만 하면,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청자는 그 조건문을 수용할 것이다. 반대로 발화자의 입장에서 자신 지닌 정보 R_A 가 C 를 보증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주장할 만한 조건문일 것이다. 이렇게 직설법적 조건문은 수용 혹은 발화되기 위해서는 W_A 와 R_A 의 보증이라는 ‘인식적 수용조건’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수용 혹은 주장이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직설법적 조건문은 ‘인식적 수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인식적 수용조건’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있어서 수용과 거부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과 기존 이론

앞서 정식화한 인식적 수용조건에 따르면 화자와 청자의 인식적 맥락에 따라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이 결정된다. 따라서 같은 $[A \rightarrow C]$ 형식의 명제는 청자의 인식적 맥락, 그의 유관한 정보인 R_A 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수용이 결정된다. 이때 W_A 는 전건의

의미 이해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체에 상대적이지 않다. 하지만 R_A 는 수용 혹은 주장의 주체에 따라서 상대적인 정보이다. 이렇게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석에 있어서 청자와 화자의 인식적 조건에 따라서 수용가능성과 주장가능성이 결정된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렘지 테스트가 주체의 정합적인 믿음 체계 내에서 가정적으로 추가된 믿음(p)을 가지고 q 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을 때, 주체의 믿음 체계가 정합적으로 어떻게 p 를 추가한 믿음 체계로 옮겨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주체의 인식적인 맥락에서 고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사용에 인식적 조건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조건문이 언제 수용가능한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이론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인식적 수용조건으로 제시되었던 아담스 논제와 강건함, 그리고 추론적 성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통해서, ‘인식적 수용조건’이 갖는 이점을 조명해보겠다.

(1) 아담스 논제

아담스 논제는 조건문 $[A \rightarrow C]$ 의 수용 정도가 C 가 주어졌을 때 A 에 대한 조건적 신뢰와 같다는 주장이다. 즉, $[A \rightarrow C]$ 의 수용정도 혹은 주장정도는 주관적 조건부 확률 $P(C/A)$ 이다. 이는 조건문의 수용이 조건적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A \rightarrow C]$ 가 주장가능하거나 수용가능하기 위해서는 발화자 혹은 청자의 $P(C/A)$ 가 높아야 한다. 이때 $P(C/A)$ 의 의미는 무엇인가? $P(A \rightarrow C) = n$ 라는 것이 A 가 주어졌을 때, B 가 있음직한 정도(혹은 $[A \& B]$ 가 있음직한 정도)라면, 주체는 A 가 발생했을 때, B 가 얼마나 잘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n 정도의 값을 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A 를 믿고 있을 때, B 도 n 정도로 믿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앞의 예 (f) ‘만약 내 동료가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와 같은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A를 완전히 믿는 경우, 후건에서는 A의 인식적 상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적절하게 해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A를 믿지 않는다.’, ‘A를 알지 못 한다.’와 같이 A의 인식상태에 대한 언급은 A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조건문의 조건적 확률을 줄 때 A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경우로 가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조건문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아담스 논제가 수용가능성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P(C/A)$ 가 어느 정도까지 높을 것을 요구하는가? 또한 $P(C/A)$ 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P(A)$, $P(C)$ 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우리는 전혀 무관한 두 명제로 이루어진 조건문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조건문의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이라고 간주하더라도(혹은 높은 확률을 부여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오늘이 겨울이라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를 듣고 영화는 ‘아니야. 그건 오늘이 겨울이라서가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거야.’라고 말할 것이다. 피실험자인 영화가 실험실에서 위의 문장을 듣고 O 혹은 X 버튼을 누르도록 명령을 받았다면, 영화는 X를 눌렀을 것이다. 물론 영화는 각각의 명제, ‘오늘이 겨울이다.’와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를 서로 완전히 독립된 이유에서 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이 겨울일 경우,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라는 명제에도 거의 참에 가깝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위 조건문을 참으로 여기거나 높은 확률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관적 확률 $P(C/A)$ 이 높다고 해서 $[A \rightarrow C]$ 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새로운 ‘인식적 수용조건’은 이때 영화가 위의 문장을 듣고 왜 X를 눌렀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영화가 이 조건문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화가 알고 있는 ‘오늘이 겨울이다.’의 성립조건

과, 영희가 가진 이 문장에 관련된 정보가 영희의 '태양은 동쪽에 서 뜬다.'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을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건의 성립조건과, 관련정보가 후건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예를 살펴보자. 영희는 실험실에서 새로운 문장을 듣게 된다. '봉구가 총각이라면, 그는 결혼하지 않았다.' 이때 영희는 봉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가 총각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다. 하지만 영희는 이 문장을 듣고 주저 없이 O를 누른다. 영희는 '봉구가 총각이다.'라는 명제의 성립조건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봉구가 결혼하지 않았다.'를 믿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진 것이 된다. 따라서 $P(C/A)$ 를 결정하는데, A와 C 각각의 확률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위의 경우처럼 $P(C/A)$ 보다 $P(A)$ 와 $P(C)$ 를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를 아담스 논제는 설명하지 못한다.

아담스 논제가 전건과 후건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인식적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주관적 조건부 확률로 표현된 조건부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해석되지 않고는 공허한 제약에 불과할 것이다.

(2) 규약적 함의로서 강건함

Jackson은 아담스 논제를 설명이 필요 없는 원초적인 것으로 본다²¹⁾.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담스 논제 역시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열려있는 조건이다. Jackson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이 규약적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진리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강건함 조건을 제시한다. 그의 강건함의 정식화에서도 드러나듯이 Jackson의 주장가능성 조건은 실질조건문 분석에 의존한 설명형식을 띤다. 즉, 조건문의 실질조건문 분석 ($A \supset C$)와 A의 관계로 정식화 된다. 이 조건은 $P(A \supset C)$ 가 높을 것을

²¹⁾ Jackson (1987), p.55.

요구하고, A라는 측면에서 $(A \supset C)$ 가 강건할 것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는 Jackson에게 있어서 $[A \rightarrow C]$ 의 주장가능성은 A라는 가정 하에서 C에 대한 조건부 믿음의 정도가 높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²²⁾. 하지만 강건함은 실질조건문 분석에 의존하는 개념이다. 만약 우리가 실질조건문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Jackson의 강건함은 그 귀결인 $P(A \& C)/P(A)$ 라는 조건적 확률이 높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강건함을 인식적 수용조건으로는 삼기에는 몇 가지 불만스러운 점들이 있다.

먼저 다소 사소한 지적일 수 있겠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주장조건은 수용조건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즉, Edgington의 첫 번째 반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규약적 함의를 주장과 수용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야한다. 두 번째로 진리조건보다 수용조건이 더 원초적, 혹은 강한 조건이라고 반박될 수 있다. Jackson은 수용조건이 규약적 함의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부드럽게 전달시키는 것에 기여할 뿐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옅힌 내용이라고 주장한다²³⁾. 그러나 그의 주장처럼 직설법적 조건문에서 과연 진리조건이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예컨대, ‘권영길은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거나, 노동환경이 악화될 것이다($\sim K \vee L$).’를 참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만약 권영길이 당선된다면, 노동환경은 악화될 것이다($K \rightarrow L$).’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때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조건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Jackson은 진리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강건함의 귀결인 $P(C/A)$ 가 높을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조건문의 주장가능성을 설명해 낼 수 있다. 달리말하자면, $[A \supset C]$ 가 A에 대해서 강

22) *Ibid.*, pp.31-32.

23) *Ibid.*, Ch.5.

건하다면, $P(C/A)$ 의 확률이 여전히 높으며, 이는 $P(\sim A \vee C)$ 보다 낮다. 그러므로 주장가능성 조건이 만족되는 조건문은 $[\sim A \vee C]$ 도 참이다. 그러므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강건함은 단지 규약적 함의처럼 진리조건에 얽혀서 뉘앙스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설법적 조건문이 높은 참의 확률을 가질 것을 함축하고 있다. 만약 조건문이 아담스 논제에 따라 조건적 주관적 확률로 측정된다면, 높은 참의 확률을 가진 직설법적 조건문은 참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므로 Jackson의 강건함은 그 자체로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을 함축한다. 세 번째로 Jackson은 Jack과 Zack의 보고를 둘 다 정당하게 수용하는 주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수용자는 $P(C/A)$ 와 $P(\sim C/A)$ 를 모두 높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A의 성립조건과 C의 진리조건만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다. 만약 수용자가 Jack으로부터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를 둘 다 들었다면, 그는 Jack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A \rightarrow \sim C]$ 형식의 명제를 Zack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는 Jack에게 들은 $[A \rightarrow C]$ 와 Zack에게서 들은 $[A \rightarrow \sim C]$ 를 모두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P(\sim C/A)$ 를 $P(C/A)$ 만큼이나 높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 발화와 수용에 관련된 인식적 맥락, 실제 발화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두 상황의 차이를 $P(A \supset C)$ 와 $P(A)$ 의 관계인 강건함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달리말하자면 수용자가 Jack으로부터 $[A \rightarrow C]$ 와 $[A \rightarrow \sim C]$ 의 둘 중 하나에 대해서 강건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Jack에게 들은 $[A \rightarrow C]$ 와 Zack에게서 들은 $[A \rightarrow \sim C]$ 에 대해서는 둘 다 강건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의 $P(A \supset C)$ 와 $P(A \supset \sim C)$ 에 대한 값을 부여하는 서로 다른 사고과정들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강건함이라는 규약적 함의는 그런 사고과정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조건문 분석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강건함의 논리적 귀결인 $P(C/A)$ 에 대

해서 다시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P(C/A)$ 가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담스 논제에 대한 논의에서 밝혔듯이 조건문을 수용 혹은 주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P(C/A)$ 만으로는 수용조건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인식적 수용조건’은 $P(C/A)$ 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한 주체가 서로 모순된 명제 형식으로 표현한 직설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질조건문 분석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Jackson의 강건함도 인식적 수용조건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3) 추론적 성향

마지막으로 ‘인식적 수용조건’의 직관적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Mellor의 성향이론과 비교해보자. Mellor의 성향이론은 아담스 논제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써 조건문의 수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A \rightarrow C]$ 의 수용조건을 제시하는 또 다른 이론이다. Mellor의 성향이론은 ‘만약 A이면, C이다.’의 조건문이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²⁴⁾’고 주장한다. 위의 조건문을 n 정도로 수용한다는 것은 A를 완전히 믿는다면, C를 믿을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다²⁵⁾. 수용조건으로서의 성향이론은 조건문의 수용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하면서도, ‘A를 완전히 믿는다면, ...’이라는 반사실적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된다. (f) ‘만약 내 동료가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를 설명해야 한다. 성향이론의 입장에서 ‘만약 내 동료가 나를 속였다고 완전히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²⁴⁾ Mellor (1993), p.236.

²⁵⁾ Mellor는 이때 ‘A를 완전히 믿는다면’은 단순 조건문으로, 직설법적 조건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p.239)

믿을 추론적 성향을 표현한다고 해야 하는가? 혹은 ‘만약 내 동료
가 나를 속였다면, 나는 그것을 몰랐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
가? 이 조건문이 표현하는 성향이 어떤 쪽이든, ‘내 동료가 나를
속였다.’를 전적으로 믿어버리게 되는 실제 상황에서는 후건을 추
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조건문을 발화할 때, 표현한 성
향은 어느 순간 없어져버리거나, 혹은 조건이 만족되면 실현되지
않을 종류의 성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렘지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성향이론에서 전건을 완전히 믿는다는 가정은 후건이 전건에
대한 인식적 태도를 포함하는 경우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하
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인식적 수용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전
건과 후건 사이의 주체 상대적인 인식적 유관성을 표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직설법적 조건문의 수용과 주장에 대한 조건으로 대안
적인 인식적 수용조건(주장조건)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인식
적 수용조건은 조건문의 사용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통찰을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많은 예들을 설명해 낸다. 하지만 이때 사용한
보증이라는 개념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모호하지 않은지 질문할
수 있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유관성을 가진 조건문들은 전건의 W_A
와 R_A 가 주어졌을 때, C 를 더 강하게 믿는다. 즉, W_A 와 R_A 가 없
을 때보다, C 를 믿는 정도가 크다. 그러므로 단지 정합적인 믿음
체계에서 동시에 수용될 수 있다는 렘지테스트의 아이디어보다 못
할 것이 없다. 이는 전건과 후건의 구체적인 관계를 제시하면서,
보증의 정도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소극
적인 조건문의 사용 조건으로도 적절하다. 이때 유관성이 R_A 라는
주체의 인식적 맥락에 의존하는 정보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문이라고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서, 또 한 주체 내에서는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수용정도가 낮아지거나 혹은 거부 될 수도
있다. 이는 Stalnaker의 직설법적 조건문이 시시때때로 다른 명제

를 표현할 수 있다는 다소 대담한 주장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조건문의 청자와 발화자의 맥락에 의존하는 조건문의 특징을 수용가능성과 주장가능성의 측면에서 설명해 낸다. 또한 보증의 유형에 대한 분석은 보증 개념과 W_A 와 R_A 를 통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섬세하게 구분해 낼 수 있다. 예컨대, '만약(If)...라면, (then) ...이다.'와 '만약(Even if)...라고 하더라도, (then) ...이다.'를 구분해 내면 전자 유형으로 표현된 조건문이 전건과 후건의 유관성의 종류에 따라 후자의 유형으로도 사용되는 경우를 설명해 낼 수 있다²⁶⁾.

인식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대안적인 '인식적 수용조건'은 우리가 조건문에 기대하는 직관적인 유관성을 잘 포착해내면서, 다른 이론들에서의 나타나는 인식적 접근들이 설명해내는 바를 잘 설명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인식적 수용조건'의 다양한 이점과 직관적 측면은 어쩌면 아직은 다소 논쟁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우리의 직관적인 조건문의 사용을 잘 설명해준다면, 이를 토대로 조건문의 의미론에 접근하는 것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의미론적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입장에서 수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아직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다.

26) '만약 A이면, C이다'의 조건문이 '만약 A라고 하더라도, C이다'라고도 쓰일 수 있는 경우는 W_A 와 R_A 가 C를 약하게 보증하기 때문에, A와 $\sim A$ 에서 거의 C에 대한 믿음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에 후자의 유형으로 표현된다.

참고문헌

- Adams, Ernest(1965), "A Logic of Conditionals", in *Inquiry*, Vol. 8.
- Adams, Ernest(1970), "Subjunctive and Indicative Conditionals" in *Foundations of Language*, Vol. 6.
- Edgington, Dorothy(1986), "Do Conditionals Have Truth Conditions?" in *Conditionals*, Jackson F.,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Gibbard, Allan(1981), "Two Recent Theories of Conditionals," in *Ifs*, Harper, W. L., Stalnaker, R., and Pearce, C. T., eds.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1981).
- Grice, H. P.(1967), "Indicative Conditionals" in his *Studies in the way of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Jackson, Frank. *Conditionals*(Oxford: Basil Blackwell, 1987).
- Mellor, D. H.(1993), "How to Believe a Conditional" in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90, No. 5.
- Ramsey, F. P.(1931), "General Propositions and Causality" in *The Foundations of Mathematics and Other Logical Essay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Stalnaker, Robert C.(1968), "A Theory of Conditionals" in *Conditionals*, Jackson F.,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Stalnaker, Robert C.(1975), "Indicative Conditionals" in

Conditionals, Jackson F., eds. (Oxford: Clarendon Press, 1991)

Stalnaker, Robert C.(1984), *Inquiry*, (Cambridge, Mass.: MIT Press, 1984)

연세대학교 철학과

Email: yunaluna@hanmail.net